

POLICY BRIEF 2022

2022. 12. vol.60

2022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www.jthink.kr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위원
연구진 | **장남정** 선임연구위원
배진아 전문연구원

I. 연구배경과 목적

-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전북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과 자연혜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 정부의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녹색복원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제시가 필요함
- ✓ 특별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녹색복원의 개념을 반영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본 연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등 정책 동향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녹색복원 정책동향과 사례조사

1.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

■ 국제사회 정책동향

- ✓ CBD는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통해 20% 이상의 훼손된 하천과 해양 및 육상 생태계가 복원되고 연결되어야 함을 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중 하나로 새롭게 제시함
- ✓ IUCN은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을 통해 인간과 자연에 의해 변형된 생태계를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적응적으로 해결하여 인간 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 ✓ 유럽연합도 2030 그린딜과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농경지의 10% 이상을 생물다양성이 높은 경관으로 바꾸고, EU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25,000km 이상의 강 물길을 복원하고, 2만명 이상 도시에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국내 정책동향

-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그린 인프라 보전과 재생 추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복원, 산림·

갯벌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제시함

- ✔ 또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국토생태축 단절·훼손지역 복원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거점 생태계 확보, Blue-Green 통합·연계를 통한 다기능 복원과 생태계서비스 제공, 훼손지 진단평가 및 도시 녹색복원, 녹색복원 추진 플랫폼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연계 등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 아울러 환경부는 국토공간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2021.1.5.),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지 목록을 구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숲 조성확대, 유휴농지와 도시 유휴공간의 흡수원 확충,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을 위한 산림보호지역 지정 확대, 산림훼손지 정밀 조사, 산림복원 계획 수립을 추진함

2. 자연환경 훼손지역 생태복원 추진사례 분석

- ✔ 최근 국내외에서는 폐 채석장, 폐 기반시설, 폐 산업시설 등 타 용도로 활용되던 곳이면서 오염된 지역(Brown field)을 복원하거나, 습지 등 기존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 단순히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원과정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 ✔ 또한 홍콩 마이포 습지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습지와 철새서식지 소멸을 막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던 새우양식장을 공공이 매입하고, 자연보전지구와 관광지구를 분리한 공간계획을 적용하여 개발과 보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음

[표1] 국내·외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사례 종합

구분	폐 채석장		폐 기반시설			폐 산업시설		습지 생태계	
	영국 에덴	포천 아트밸리	대구 수목원	서울 선유도	남산 예방공원	장항 송림육장	부산 그린웨이	홍콩 마이포	창원 우포 늪
복원대상	폐 채석장		폐 쓰레기 매립장	폐 취수장	남산 역사문화 부지	폐 제철소	폐 철도	갯벌 습지	강 습지
복원 단위	면	면	면	면	면	면+선	선	면	면
자연성의 복원	◎	◎	◎	◎	◎	◎	×	◎	◎
지역경제 파급력	◎	◎	◎	×	△	△	◎	△	×
인식전환 및 교육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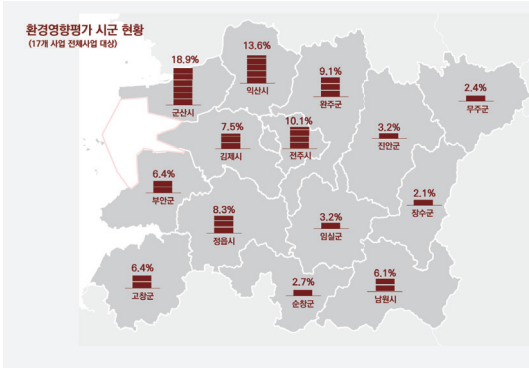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III.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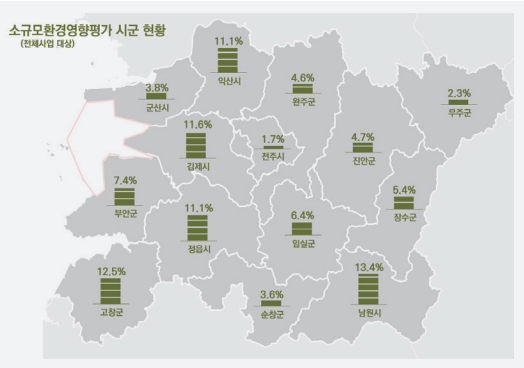
1. 자연환경 훼손사업 추진현황

- ✓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¹⁾을 통해 공개되는 사업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간 추진된 전체 개발사업과 토석채취 분야 사업을 분석함
- ✓ 1980~2022년간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총 375건으로, 도로건설(20.3%),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19.7%), 도시개발(11.2%), 관광단지 개발(10.1%) 순이었으며, 2012~2022년간 추진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3,083건으로, 남원시(13.4%), 고창군(12.5%), 김제시(11.6%) 순으로 나타남
- ✓ 비교적 대규모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서북부 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많았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남원, 고창, 김제, 익산, 정읍 등 도농복합시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많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군별 비율(%)



[그림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군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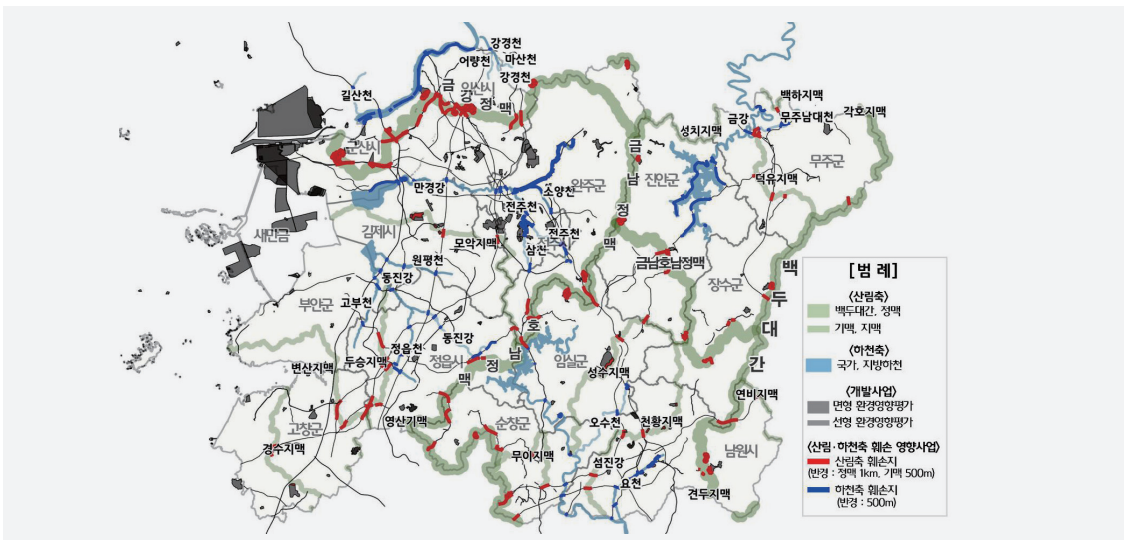


- ✓ 환경영향평가 대상 토석채취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은 총 27건으로 익산과 완주가 각 6건, 부안 4건으로 많았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토석채취사업(골재·매립·광산)은 총 212건으로, 남원(63건), 고창(40건), 장수와 정읍(각 18건)으로 많았음
- ✓ 토석채취사업은 남원시와 고창군, 정읍시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남원시는 모든 유형의 토석채취사업(골재채취, 개간, 석산개발, 광산개발, 토사채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 ✓ 198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간정보로 구축된 346건을 대상으로 이들 사업이 산림축(백두대간·정맥·지맥)과 하천축(국가·지방급하천)을 단절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GIS를 활용하여 분석함
- ✓ 분석 결과 산림축 단절 및 훼손 우려 지점은 119개소, 하천축 단절 및 훼손 우려 지점은 95개소로 나타남
- ✓ 산림축 단절은 서북부 군산-익산-완주 구간의 금강정맥에 대한 도로건설,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개발에 따른 단절과 훼손이 많았으며, 하천축 단절은 금강과 만경강 분류 구간에 대한 도로 및 철도 건설, 관광지 개발, 하천정비 사업 등에 따른 단절, 훼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3]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한 산림축과 하천축 단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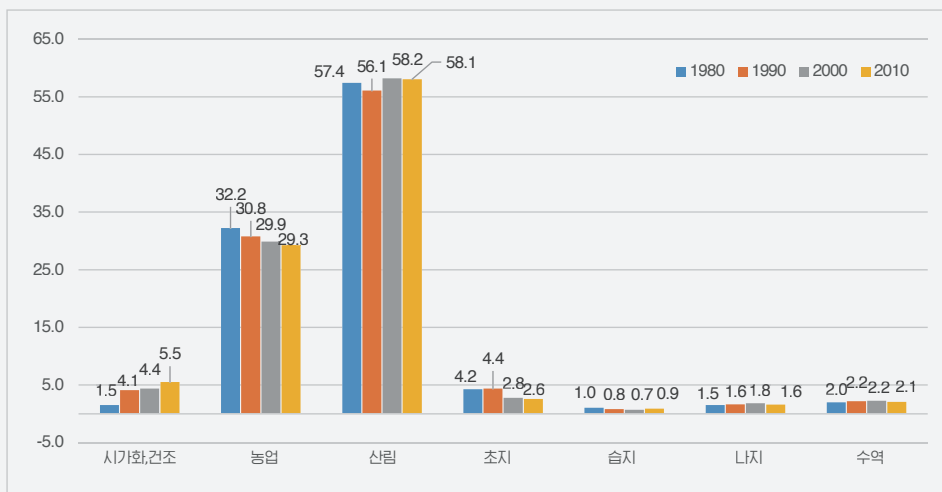


2.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 ✓ 지표면의 생태계 유형을 분류하는 정보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환경부 제작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까지 토지피복의 변화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지의 분포 변화를 파악함
- ✓ 분석 결과 시가화·건조지역은 1.52%에서 5.52%로 4.04% 증가했고, 산림과 농업지역은 2.34%가 감소하여 환경적으로 상대적으로 환경가치가 높은 산림과 농업지역은 감소하고 환경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적 유형인 시가화 건조지역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 농업지역에서 타 유형으로의 변화가 약 1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농경지대가 넓게 분포된 전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변화가 많았으며, 주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대규모 도시지역 인근에서 발생함
- ✓ 산림에서 타 유형으로의 변화는 약 6%를 차지하였으나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한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분석됨
- ✓ 새만금 지역과 수역(하천)의 제외지(하천구역)는 초지와 습지 등 자연성이 높은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4]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까지 전라북도 토지피복별 면적 비율(%) 변화



[그림5]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까지 전라북도 토지피복 변화 매트릭스

후(2010) 전(1980)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총계
시가화·건조지역	73.43 (0.91)	27.64 (0.34)	8.34 (0.10)	4.52 (0.06)	1.88 단위: (0.02)	3.79 (0.05)	3.38 (0.04)	122.98 (1.52)
농업지역	233.88 (2.89)	1,791.23 (22.12)	364.48 (4.50)	104.77 (1.29)	18.95 (0.23)	66.09 (0.82)	31.53 (0.39)	2,610.94 (32.25)
산림지역	55.28 (0.68)	311.59 (3.85)	4,167.99 (51.48)	56.76 (0.70)	5.44 (0.07)	28.05 (0.35)	24.94 (0.31)	4,650.05 (57.44)
초지	26.63 (0.33)	142.00 (1.75)	133.48 (1.65)	26.72 (0.33)	1.93 (0.02)	7.74 (0.10)	4.79 (0.06)	343.30 (4.24)
습지	11.48 (0.14)	30.10 (0.37)	1.63 (0.02)	4.57 (0.06)	22.99 (0.28)	6.45 (0.08)	7.40 (0.09)	84.62 (1.05)
나지	34.91 (0.43)	45.46 (0.56)	16.43 (0.20)	5.62 (0.07)	2.97 (0.04)	9.39 (0.12)	8.55 (0.11)	123.33 (1.52)
수역	11.68 (0.14)	21.80 (0.27)	9.69 (0.12)	5.30 (0.07)	16.74 (0.21)	8.03 (0.10)	87.55 (1.08)	160.78 (1.99)
총계	447.28 (5.52)	2,369.83 (29.27)	4,702.04 (58.08)	208.26 (2.57)	70.90 (0.88)	129.54 (1.60)	168.14 (2.08)	8,095.99 (100.00)

범례

- 환경적 가치 상승으로 변화 높음
- 환경적 가치 상승으로 변화 낮음
- 환경적 가치 하락으로 변화 높음
- 환경적 가치 하락으로 변화 낮음

단위: km²/%

3.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 ✓ 먼저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 분석과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녹색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연구진 제안 과제로 제시함
- ✓ 1) 복원의 시급성, 2) 생태축 연결성, 3) 기후위기 대응력, 4) 생태·문화 융합성을 적용하여 10곳의 녹색복원 후보지 대상지역을 각 대상지역별로 추진 가능한 예상 사업과 매칭하여 제시함

[표2] 연구진 제안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및 예상사업 도출(안)

후보지/사업	위치	항목별 평가
익산 왕궁특수지역 복원	익산시 왕궁면 운수리, 구덕리 일원 왕궁특별관리지역	시급성 상, 연결성 중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임실 옥정호-호남정맥 생태축 연결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운종리 일원	시급성 중,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익산 폐석산 산림생태 복원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낭산면 용기리 일원	시급성 상, 연결성 중 대응력 상, 융합성 중
고창, 부안 갯벌 생태계 훼손지 복원	고창, 부안 곰소만 갯벌 주변 지역	시급성 상,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무주-장수-남원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복원	무주, 장수, 남원 백두대간 주변지역 (장수군 육십령, 무주군 반디랜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일원)	시급성 상,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진안-장수 금남호남정맥 신광재 복원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일원	시급성 상,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군산 금강정맥 청암산 생태계 훼손지 복원	군산시 옥산면, 회현면 청암산 일원	시급성 중,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새만금 생태환경 복원	새만금(군산-김제-부안) 환경생태용지 및 주변지역	시급성 상,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섬진강댐, 용담댐 주변지역 생태복원	진안, 무주 용담댐 일원 임실, 정읍 섬진강댐 일원	시급성 중,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만경강, 동진강 수변생태축 복원	만경강 유역: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동진강 유역: 부안, 김제, 정읍	시급성 상,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 ✓ 다음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 시·군에서 8개(10개 세부사업), 총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출됨

[표3]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 수요

시군명	사업명	유형	사업내용	추진예산
합계	8개 (10개 세부사업)			3,500
익산시	왕궁정착농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축사매입부지	오염/유휴지 복원, 생태학습장 조성 등	2,500
	학평재 생태습지 복원사업	습지	생태습지 복원	50
	돌산 녹색복원 사업(2개소)	폐석산	지하 토석채취지 생태복원	600

[표3]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 수요

시군명	사업명	유형	사업내용	추진예산
정읍시	월영소하천~정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부지	생태하천 복원	30
완주군	빙등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담수호	지형 복원, 생태공간 여건 조성 등	50
임실군	운암 호남정맥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훼손 농경지	훼손지 식생복원, 생태탐방로 정비	100
고창군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 복원사업	생태축 단절 부지	지형 녹지화 생태통로	50
	영산기맥(선운사·운곡습지 권역) 생태축 복원사업	생태 단절(도로) 부지	터널형 생태통로 3개소	10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생태탐방로 관리사업	생태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노후화 시설물 보수	20

IV.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1. 녹색복원 추진방향과 전략

■ 미래 녹색복원 추진방향

- ✓ 개발 중심의 토지이용으로 훼손된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원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자연 가치 중심의 토지 활용 필요
- ✓ 고유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생태계의 연결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고, 자연 가치를 향상하며,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녹색복원 사업 추진
- ✓ 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생태, 역사, 문화, 마을, 지역이 함께 공존·발전할 수 있는 시·군 주도의 녹색복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녹색복원 비전과 목표

- ✓ 전라북도 녹색복원의 핵심 추진방향과 키워드를 토대로 비전을 '녹색복원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라북도 생태공간'으로 설정함
- ✓ 목표는 '전북 고유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녹색융합 생태공간 조성'으로 함

■ 녹색복원 추진전략

- ✓ 녹색복원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으로 ① 자연의 연결성, 구조·기능 복원, ②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 ③ 생태문화 융합으로 지역 회생·발전, ④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를 제시함

2.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과제

■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 광역생태축 연결·복원

- ✔ 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생태축의 재연결 및 생태계 복원
 - 산림생태축 단절지점의 연결과 야생생물 이동성 향상, 생태계 구조와 기능 회복을 위한 경관형 생태통로 구축, 사면절개지 복원, 기후변화에 취약한 무주, 장수, 남원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복원
-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하천생태축 복원
 -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의 제외지를 중심으로 육화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하천의 종적·횡적 연결성을 강화하며, 경관생태학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생태축 복원
- ✔ 고창-부안 갯벌 생태복원사업 추진 및 섬과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 훼손지역 보전

■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 ✔ 산림-하천, 산림-연안, 도서-해양 생태축 생태복원
 -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등 4대 대간-정간과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의 4대 하천의 생태축 연결 가능지역 발굴 및 연결사업 추진
 -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및 위도를 연결하여 동북아 철새이동경로상의 조류 서식공간 확보, 생태계 연결성 강화, 연안-해양 생태관광 거점 조성
- ✔ 옥정호-호남정맥, 금강-섬진강-금남호남정맥 Blue-Green 생태복원 및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생태복원

■ 도시 및 농산어촌 Green Infrastructure 구축

- ✔ 노후도시계획시설 생태복원, 마을숲, 싹지숲 및 생태화단과 조경이 어우러진 선형 그린웨이(Green Way)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 경관농업, 농촌협약 등을 통해 탄소흡수율이 높은 생태화단과 가로수를 식재하는 탄소중립 농어촌 생태경관마을 조성

■ 유희공간과 오염부지 복원 및 하천의 자연성 회복

- ✔ 익산 왕궁특수지역 생태·문화·주거 복합공간 조성 및 백제왕궁 생태복원 추진
 -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협업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복원·재생하는 K-뉴 에덴 프로젝트 추진, 왕궁리 백제시대 궁전 유적과 전통조경을 테마로 한 익산 백제왕궁 지방정원 조성 추진
- ✔ 폐석산 생태복원 및 지방정원 조성
 - 익산, 남원, 완주, 부안, 정읍, 고창 지역에 산재한 폐석산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친환경 복원사업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 ✔ 하천구역 및 댐 주변지역 자연성 회복
 - 만경강 및 동진강 하천구역 수변생태벨트 사업 추진 및 섬진강댐, 용담댐 친환경 보전 및 활용사업 추진

- 농업용수 등 물 배분 문제를 고려하여 기능이 소멸된 농업용 보 해체 등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추진

■ 녹색복원과 생태문화, IT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 ✓ 시·군 주도로 역사문화와 생태자산을 접목한 시·군 1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
-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태복원 서비스 창출
 - 1:5,000 스케일의 광역 생태지도와 시·군에서 구축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역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선순위 도출
 - 디지털 트윈, 위성영상, LiDAR,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한 생태-정보기술 융합 녹색복원 사업 추진

■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 ✓ 생태복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전라북도 녹색복원 체험마을」 육성
 - 생태관광지역 마을 내 논습지, 유휴공간을 생태복원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야생생물 먹이주기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생태복원 체험마을 사업 추진
- ✓ 장거리 전라북도 생태탐방로 조성
 - 마을별로 생태자산과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한 장거리 전라북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추진중인 생태복원사업을 경험하고, 생태관광의 연속성과 지역간 연계·통합 활성화에 기여

■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 ✓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구축된 생태계 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를 활용,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 ✓ 광역생태지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등 전라북도 환경공간정보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개정

■ 시민참여, 정부·지역·전문가 연계 협력체계 구축

- ✓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생태복원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평가하여 시민녹색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에 필요한 재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 ✓ 시민참여 기반 생태자산 발굴,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녹색복원 사업 추진
-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등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을 활용하여 녹색복원 사업의 복원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개선방향 도출 등에 활용

Summary

A Study on Jeollabuk-do Green Restoration Promotion Methods for Degradation Areas of Natural Environment

Joungyoon Chun, Namjung Jang, Jina Bae

-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urrent degradation status of natural environment in Jeollabuk-do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and major tasks for planning and executing effective green restoration projects suitable for the province.
- ✔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ly damaging projects in Jeollabuk-do for the past 40 years, since the 1980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occurr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complexe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oad construction, tourism-complex development, and golf-course construction, which resulted in separating 119 forest corridors and 95 river corridors.
- ✔ According to the time-series analysis of the land-cover type during the same period, the forest area, agricultural area, grassland, and wetland decreased, and the urbanized and dry area increased. In particular, the shift from the agricultural area to other types of land was the largest, which was 10.12% of the entire area of the province.
- ✔ The vision is to "recover ecological space in Jeollabuk-do with green restoration" and the goal is to "implement green ecological space with Jeollabuk-do's unique ecosystem and culture harmonized."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e ① restoring the connectivity,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② creating new restoration spaces, ③ regenerating and developing the reg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ecology and culture, and ④ securing the foundation for proceeding with green restoration.
- ✔ The tasks include ① connecting and restoring the forest-river-coast-islands-maritime ecological corridors, ② planning and executing large-scale complex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s, ③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for urban and rural areas, ④ restoring underused and contaminated sites and recovering the natural attributes of rivers and coasts, ⑤ creating ecosystem services through green restoration, ecological culture, and IT technology, ⑥ creating eco-tourism areas in accordance with ecological restoration, ⑦ securing the foundation of a mid-to-long-term green resto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maps, and ⑧ establishing a system of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the government, the region, and experts, together with citizen participation.

Key Words Green restoration, Degradation area,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status, Ecological space



A Study on Jeollabuk-do Green Restoration Promotion Methods for Degradation Areas of Natural Environment

Joungyoon Chun, Namjung Jang, Jina Bae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 _ 권혁남 발행처 _ 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